

제 1 교시

국어 영역

홀수형

[1~2] (문법)

1. <보기>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, 적절하지 않은 것은?  
[3점]

<보 기>

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- ㉠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.  
예 '동생은 책을 읽었다.'의 '-다'
- ㉡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.  
예 '이것은 장미꽃이고, 저것은 국화꽃이다.'의 '-고'
- ㉢ 용언을 명사, 관형사,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.  
예 '내일 입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.'의 '-을'

- ① '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.'의 '-구나'는 ㉠에 해당한다.
- ② '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?'의 '-지'는 ㉠에 해당한다.
- ③ '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?'의 '-는'은 ㉡에 해당한다.
- ④ '형은 밥을 먹었으나,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.'의 '-으나'는 ㉢에 해당한다.
- ⑤ '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.'의 '-기'는 ㉢에 해당한다.

2. (가)의 ㉠, ㉡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(나)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**(가) 학생의 탐구 내용**  
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'꽃잎 표면에 이렇처럼 주름이 진 부분'을 가리키는 말로 '꽃이랑', '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'을 나타내는 말로 '꽃오목'을 만들었어.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, '꽃이랑'은 ( ㉠ ), '꽃오목'은 ( ㉡ )으로 발음해야 해.

**(나) 표준 발음법 조항**  
**제15항** 받침 뒤에 모음 'ㅏ, ㅑ, ㅓ, ㅕ, ㅗ, ㅛ'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,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  
예 곁-웃[거든], 헛-웃음[허두슴]  
**제29항**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,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'이, 야, 여, 요,, 유'인 경우에는, 'ㄴ' 소리를 첨가하여 [니, 녀, 녀, 뇨, 뉴]로 발음한다.  
예 담-요 [담 : 뇨], 흠-이불[훈니불]

- |         |       |
|---------|-------|
| ㉠       | ㉡     |
| ① [꼰니랑] | [꼬도목] |
| ② [꼰니랑] | [꼬초목] |
| ③ [꼰니랑] | [꼰노목] |
| ④ [꼬디랑] | [꼬초목] |
| ⑤ [꼬디랑] | [꼬도목] |

[1~2] (가)는 모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토의이다. 물  
음에 답하시오.

**[모둠 과제 안내장]**

- 과제: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 쓰기.
- 조건: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.

(가)

**학생 1:** 자,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 보자.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맛나거리에 대해 쓰고 싶은데, 어때?

**학생 2:**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△△거리, □□길처럼 비스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.

**학생 3:**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.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.

**학생 1:** 그게 좋겠다.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.

**학생 2:** 응, 알겠어. 그리고 사랑미술관도 소개하자. 거기서 **[A]**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이던데.

**학생 1:**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.

**학생 3:**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.

**학생 2:** 알겠어.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 조사해 올게.

**학생 3:**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제당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도 소개하자.

**학생 1:** 좋은 생각이야.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?

**학생 3:** 알겠어.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.

**학생 2:** 참,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던데. 우리 **[B]**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제당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.

**학생 3:** 그리고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.

**학생 1, 2:** 좋아.

**학생 3:**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?

**학생 2:** ㉠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,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?

**학생 1:** ㉡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?

**학생 3:** 좋은 생각이야.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. 사랑시의 전통, 자연,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,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면 좋겠어.

**학생 1:** 그럼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?

**학생 2:**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때?

**학생 1, 3:** 응, 좋아.

**학생 1:**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.

1. [A]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학생 2’가 △△거리, □□길을 언급한 것은 맛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.
- ② ‘학생 3’이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한 것은 ‘학생 2’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.
- ③ ‘학생 2’가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군.
- ④ ‘학생 1’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.
- ⑤ ‘학생 3’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‘학생 1’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군.

2. 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.
- ② ㉡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.
- ③ ㉠은 ㉡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.
- ④ ㉡은 ㉠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.
- ⑤ ㉠과 ㉡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.

국평일 배포 자료 아침 자습 자료 10차

선택 영역 by 평가원 정답

2014.09 A형 문법 (12) / 2014.수능 B형 문법 (12) 1. ㉓ 2. ㉑

2019.06 화법 작문 융합 (4, 5) 1. ㉓ 2. ㉑